

유해화학물질

화재·폭발 사고!

사업주의 무관심과 작업자의 부주의로 언제,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.



최근 재해사례

2012. 6. 18.



경기도 화성소재 점착제 제조공장에서 화학 물질 제조 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유증기가 폭발, 4명 사망, 9명 부상

2013. 2. 18.



화성소재 제약회사에서 신제품 양산 시험 중 여과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 화상, 합성동 2~3층이 전소됨

화재·폭발 사고사례

빈 드럼 절단 작업 중 폭발



신너를 보관했던 페드럼을 난로로 사용하기 위해 산소 용접기로 절단 작업 중 페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

집진기 청소 중 폭발



작업자가 빗자루로 집진기(먼지를 흡입하는 장치) 내부를 청소 하던 중 정전기에 의한 스파크로 인해 집진기가 폭발

자동차 도장부스 폭발



도장부스의 국소배기장치를 가동시키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작업 중 신너 등 유증기가 정전기·전기설비의 스파크 등에 점화되어 폭발

저장탱크 용접작업 중 폭발



위험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 및 드릴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탱크 내부로 날려 탱크 내 유증기 폭발



화재·폭발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!

위험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·폭발 발생



화재·폭발 사고를 예방하려면 위험물과 점화원을 제거해야 합니다

- 실내 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창문을 열거나 강제 송풍 등 환기를 하여 유증기 등 인화성 가스를 제거하여야 합니다.
- 유증기 등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인화성 물질 취급 시
 -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, 비방폭형 전기기기(손전등, 전동공구 등)의 사용을 금지하고,
 - 제전화, 제전복 착용으로 인체의 정전기를 없애고,
 - 접지클램프 사용 등 접지조치로 설비의 정전기도 제거해야 합니다.
- 배관이나 드럼통 등 용접작업 시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주변에 불꽃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
